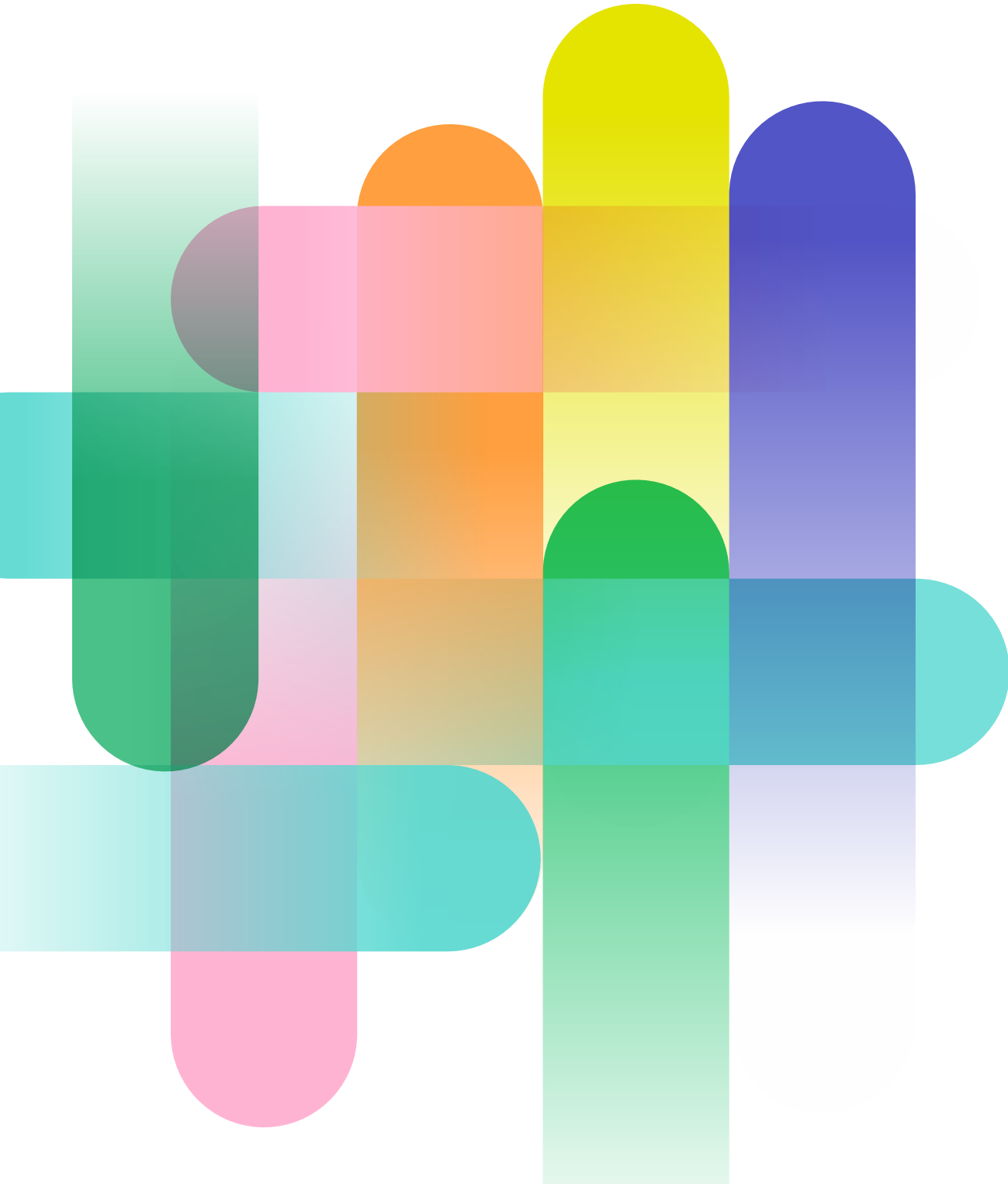


Pluresilience FOCUS

2026 vol.10



플루리질리언스 포커스

‘플루리질리언스’ 연구의 가능성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3.0 플루리질리언스사업단 포커스 2026년 제10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3.0 플루리질리언스사업단
HK3.0 Pluresilience Research Unit, CNU

Pluresilience FOCUS

2026 vol.10

‘플루리질리언스’ 연구의 가능성

CONTENTS

아젠다 기획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

해리 보이트(Harry C. Boyte)의 일상 정치론을 중심으로(한우리) 04

서사는 어떻게 회복탄력성을 높이는가?(조은상) 10

기억하는 주체들을 통한 비금도 산명의 변경과 장소정체성 회복 :

그림산을 중심으로(박미선) 17

정책 동향 및 제언

『청년소멸보고서』와 함께(서로) 돌봄 :

연대와 회복을 위한 사회적 돌봄 재구성 정책 제언(박주희) 24

*『플루리질리언스 포커스』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인문학국(HK)3.0 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리질리언스’와 관련한 국·내외의 각종 정책 동향·정보 등을 발굴·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플루리질리언스 포커스』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인 정미라

발행일 2026.02.28.

발행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국(HK)3.0 플루리질리언스 사업단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 3호관

전화 062-530-5218 / 팩스 062-530-5219

아젠다 기획

한우리_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

해리 보이트(Harry C. Boyte)의 일상 정치론을 중심으로

조은상_ 건국대학교 문학예술심리치료학과

서사는 어떻게 회복탄력성을 높이는가?

박미선_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기억하는 주체들을 통한 비금도 산명의 변경과 장소정체성 회복 :

그림산을 중심으로

* '아젠다 기획'은 '리질리언스'와 관련한 국내·외의 각종 연구를 요약·소개함으로써, 인문학 영역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논점을 도출합니다.

*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집필자의 개별 연구 성과에 기반을 둔 것으로, 향후 게재·출판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인용을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해리 보이트(Harry C. Boyte)의
일상 정치론을 중심으로

한우리(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조교수)

1. 들어가며

이 글은 상상력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세계에 관한 상(像)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상상력을 발휘하고 머리를 맞대어 논의할 때 우리가 꿈꾸어야 할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모든 존재의 존엄성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할 공공의 문제란 무엇인가? 어떠한 구별이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사안을 갈라놓는가? 어떠한 인간의 활동, 행위, 목소리가 공적인 문제가 되며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다양한 역사적·정치적 관습과 제도에 결합되어 구조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치철학자는 정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정치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공동체를 제시해왔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the idea of the Good)를 통해 정의로운 공동체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the Good life)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목적을 논한 바 있다. 이처럼 정치적 비전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상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정치철학자는 상상력을 통해 현실 정치를 단순하게 묘사하거나 분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그 자체를 이해하는 인식적 틀을 형성하는 데 일조해왔다. 이때 정치철학자의 상상적 비전은 정치 질서 내부의 현

* 이 글은 『가족과 커뮤니티』 13집 (2026)에 실린 논문을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상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정치 질서 바깥에 놓인 선(善)에 비추어 현실을 해석하려는 “건축적”(architectonic) 형태를 띤다.¹⁾ 이 글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 긴급히 요구되는 정치적 상상력으로서 ‘일상 정치’(Everyday Politics)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Community Organizing)²⁾을 제안하며, 두 개념을 주요하게 논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해리 보이트(Harry C. Boyte)를 소개한다.

보이트는 지역과 일상에 기초한 시민 정치를 강조하는 정치사상가이자 노스캐롤라이나와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활동한 시민운동 조직가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정치 엘리트나 정부 주도의 제도 개혁 또는 시민의 권리 요구로 축소하는 것을 거부하는 보이트는 미국식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정치철학을 통합하는 실천적 관점에서 나온 일상 정치론을 제안한다. 그게 제안하는 일상 정치는 시민 개개인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즉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 변모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아쉽게도 지금껏 한국 학계에서 보이트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이트의 논의는 한국의 시민 정치 현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개념은 한국의 다양한 지역 공동체와 교육 현장, 시민운동의 맥락에서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다양한 풀뿌리 실천을 이론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보이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는 정치의 생산적·창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상 정치는 민주주의를 생활과 노동을 통해 구축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보고, 정치적인 것이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관점을 지닌 이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단순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이론가를 소개하거나 외부의 이론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에 축적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천을 새롭게 드러내고 연결하려는 학문적·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2. 해리 보이트의 일상 정치론

건국 초기 뉴잉글랜드의 타운 제도가 보여주듯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은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공공의 문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다루는데 있다. 특히 이 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해리 보이트

1) Wolin, *Politics and Vision*, 19면.

2) 오거나이징은 시민 결사, 결사체 조직, 지역사회 조직화, 공동체 조직 등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커뮤니티(Community)가 단순히 거주지 또는 지역사회와 같이 지리적으로 고정된 경계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한다. 커뮤니티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을 포함한 일상 전반에서 사용자의 소속감, 신뢰, 상호작용, 헌신, 경쟁 등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소로 간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거나이징(Organizing) 또한 조직 또는 조직화로 번역하기 보다는 음차함으로써 이것이 일종의 ‘과정 중의 실천’(practice in progress)임을 강조한다. 오거나이징은 완결되지 않은 채 재구성에 열려 있고, 언제나 현장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실천으로서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커뮤니티를 창조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화한다. 개념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참여자들이 확립된 제도의 변화를 이끌고,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과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과 자유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파일스, 로레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글로벌 세계에서의 변혁적 실천』, 김희송 역,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5를 참조.

는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SCLC) 소속이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현장 책임자(field secretary) 중 한 명으로, 노스캐롤라이나와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교회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을 조직하던 활동가였다. 이후 보이트는 미네소타 대학 민주주의와 시민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Citizenship) 소속으로 ‘공적 실천 프로그램’(Public Achievement)을 개발한다. 학생들이 모여 학교와 지역의 문제를 발굴, 조사, 실천하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미 전역의 다양한 대학과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콜로라도 대학의 공적 실천 프로그램은 학부생과 볼더 지역의 초, 중, 고 교생을 연결하고 이들이 평등한 공동체 구축 및 지역 수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적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³⁾

정치철학자로서 보이트는 미국 초기 민주적 전통에 기반한 생활과 노동 중심의 실천적 맥락에서 정치를 설명한다.⁴⁾

일상 정치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뉴딜과 시민권 운동의 민주적 가치를 되살리고 나아가 페미니즘 운동, 환경 운동, 신앙 기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청년 시민 참여 운동을 재조명한다. 일상 정치는 시민을 민주적 삶의 방식의 공동 창조자로 본다. 이는 공동체 주의자들이 강조한 공동체와 자유주의의 핵심인 정치를 통합한다. 실질적 이해집단 간의 협상과 시민적 이상도 결합한다. 이러한 정치 연금술의 핵심은 참여 민주주의 이론들에서 누락된 개념인 ‘노동’에 있다.⁵⁾

보이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는 미국 초기 민주적 정신을 계승하며 현대적인 것으로 되살리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그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그동안 정치를 전문화하는 동시에 시민성(citizenship)을 탈정치화해 왔음을 비판한다. 기존의 시민사회 담론은 시민을 단순히 유권자, 의뢰인, 시위자, 혹은 자원봉사자로 축소해왔으며, 정치를 그저 정부, 컨설턴트, 로비스트, 전문가가 개입하는 영역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왔다. 이러한 ‘전문가 숭배’(the cult of the expert)는 공적 삶(public life)을 위축시켜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약화시킨다.⁶⁾ 이로 인해 정치는 정부의 주도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얻는가”에 관한 분배 논리로 축소되고, 정작 그 “무엇”에 관한 논의, 즉 ‘공동의 부’를 창조하는 실제적 과정은 사라진다.⁷⁾ 이 과정에서 시민성은 권력이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순수한 것이거나 순수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시민성 발휘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3)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Public Achievement: About. <https://www.colorado.edu/publicachievement/about> (검색일 25.11.9.)

4) 현재 보이트는 옥스버그 대학(Augsburg College)의 사보 민주주의와 시민권 센터(Sabo Center for Democracy and Citizenship)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남아공 민주주의 연구소(Institute for Democracy in South Africa), 전국 시민 재생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Civic Renewal)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기관 및 지역의 시민 조직, 비영리 단체, 교육 기관과 함께 일하며 공적 노동과 시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정치를 펼치고 있다. University of Minnesota. Harry Boyte: Affiliate Faculty. <https://www.hhh.umn.edu/directory/harry-boyte> (검색일 25.10.13.)

5) Boyte, Harry C. *Everyday Politics: Reconnecting Citizens and Public Lif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4. 15면. 보이트 저작의 번역 및 강조는 인용자.

6) Boyte, *Civic Agency*, 2면.

7) Boyte, *Everyday Politics*, 58면.

기반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보이트의 관점은 평범한 사람들을 자신이 처한 환경의 공동 창조자이자 맥락과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행위 주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을 정치 행위 주체로 강조하는 일상 정치는 미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인 뉴딜 정책과 흑인, 성 소수자, 여성 등이 가시화된 시민권 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닿아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지 투표에 참여하거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식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하는 능력인 ‘시민 역량’(civic agency)이 회복되어야 한다. 시민은 무력한 존재가 아니며,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환경을 만드는 공동 창조자이다. 시민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동등하고 창조적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시민 일상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노동, 특히 ‘공적 노동’(public work)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보이트가 정의하는 공적 노동은 다양한 이해관계, 관점,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재를 창출하는 행위로서 “일상 정치의 핵심 개념”이다.⁸⁾

공적 노동은 시민적 개입을 서비스 또는 자원봉사로 보지 않으며 직업, 규율, 개인적·제도적 노동이 갖는 공적 성격을 포착한다. 예를 들어 각각 고립된 채 학문을 축적하는 현재의 경쟁적인 대학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을 공적 노동으로, 교사를 공적 노동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⁹⁾ 일상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의 공적 노동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을 단순한 유권자나 자원봉사자가 아닌 민주주의의 공동 창조자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가 아닌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여성, 청년 등 개인의 시민적 개입은 공적 노동이 된다. 무엇보다 보이트의 논의는 정치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관점을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인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는 구별되는데, 각각의 이론들은 주요 관심사, 핵심 문제, 주요 과제, 시민성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

8) Boyte, *Everyday Politics*, 5면.

9) Boyte, *Civic Agency*, 28면.

<표> 보이트의 '일상 정치'

구분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일상 정치
주요 관심사	분배 정의	도덕 질서	시민 역량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의 정부	참여적 도덕 질서	공적 노동을 통해 구축되는 삶의 방식
시민은 누구인가?	유권자, 소비자	공동체 구성원, 자원봉사자	공동 창조자·행위자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투표, 법 준수 권리 존중	타인을 돕고 참여하는 것	공적 노동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불평등, 무지	급진적 개인주의	기술 관료주의, 무력감
중심 과제는 무엇인가?	권리와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	공동체 형성, 가치 교육	시민 역량의 개발
핵심 방법은 무엇인가?	투표, 대중 동원, 공공 의견 개진	봉사	조직화, 민중교육, 공적 노동 문화 창조

위 <표>는 보이트가 제안한 '시민 참여의 세 가지 틀'(Three Frameworks of Civic Engagement)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¹⁰⁾ 보이트에 의하면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주된 관심사는 분배 정의로, 사회가 제도를 통해 재화, 기회, 권리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이러한 이론 틀에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불평등한 분배와 무지로 보며, 투표나 대중 동원,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파악한다. 이와 달리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은 공동체적 관계와 소속의 윤리를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들의 참여적 도덕 질서로 설명되고, 지나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교육과 여론 형성을 통한 도덕적 합의가 중요해진다.

보이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는 자유주의·공동체주의 정치철학의 요소를 통합하는 실천적 관점이다. 이는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기반한다.¹¹⁾ 일상 정치론은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기존의 관점과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재검토를 촉진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정치 엘리트, 전문가, 정부 주도의 제도 개혁이나 시민의 권리 요구로 축소하는 것을 넘어 시민 개개인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 자체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이트의 관점은 시민 역량 및 적극적 시민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논의와 결합하여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위원회 시민 역량 지표를 개발한 호스킨스(Bryony Hoskins)은 시민성 모델을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지식 및 기술 교육에 초점을 둔 자유주의 시민성 모델과 공공정신, 연대, 공

10) Boyte, *Civic Agency*, 37면.

11) Boyte, "Civic Education," 764 면.

동선을 위한 행동을 중시하는 공화주의 시민성 모델을 분리하고, 이와 다른 비판적 시민성 모델을 제안한다. 호스킨스에 의하면, 비판적 시민성 모델은 사회 행동과 정치 행동을 통한 사회 비판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회 부정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강조한다.¹²⁾

무엇보다 보이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론은 정치의 생산적·창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표>에서 보듯 일상 정치는 시민 역할을 주된 관심사로 삼고, 공적 노동을 일종의 “삶의 방식”(a way of life)으로 간주한다. 민주주의가 공적 노동을 통해 구축되는 삶의 방식이라면, 정치 활동은 공동의 세계를 구축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된다. 정치의 창조성은 정치가 마치 “시(poetry)와 같이 의미(meaning), 목적(purpose), 정의(justice), 심지어 아름다움(beauty)에 관한 질문”이라는 데 있다.¹³⁾

정치가 기존에 숨겨져 있던 이해관계를 드러낸다면, 정치의 목적은 수반되는 갈등이나 애매모호함을 지우는 데 있지 않다. 정치 활동은 모호함을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종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보이트는 “모호함으로 충만하고, 가치의 갈등과 얽혀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성적 노력”이 정치라고 설명한다.¹⁴⁾ 그가 제안하는 일상 정치는 마치 재즈처럼 “반복적이고 열려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¹⁵⁾ 이처럼 일상 정치는 시민을 시인이자 음악가와 같이 민주적 삶을 공동으로 창조하는 이들로 바라본다. 나아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갈등을 담아내고, 공동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노동을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직화에 초점을 맞춘다.¹⁶⁾ 조직화, 즉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종종 분열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이상을 호명하는 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며, 희망을 남긴다.

12)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호스킨스, 브라이오니, 『민주주의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 발달』, 김국현 역, 한국문화사, 2020, 29~45면 참조.

13) Boyte, Civic Agency, 14면.

14) Boyte, Civic Agency, 14면.

15) Dzur, Albert. “Professionalism, Democracy and Civic Education: A Conversation with Harry Boyte.” National Civic Review 108(1), 2019, 35면.

16) Boyte, “Civic Education,” 764면.

참고문헌

- 토크빌, 알렉시스 드, 『미국의 민주주의』 1·2, 임효선·박지동 역, 한길사, 2022.
- 파일스, 로레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글로벌 세계에서의 변혁적 실천』, 김희송 외 역,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 호스킨스, 브라이오니, 『민주주의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민교육과 정치 교육: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 발달』, 김국현 역, 한국문화사, 2020, 29~45면.
- Arnstein, Sherry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1969, pp.216~224.
- Boyte, Harry C. *Everyday Politics: Reconnecting Citizens and Public Lif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4.
- Boyte, Harry C. *Civic Agency and the Cult of the Expert: A Study for the Kettering Foundation*. Kettering Foundation, 2009. <https://eric.ed.gov/?id=ED510128> (검색일: 2025.10.24.)
- Boyte, Harry C. "Civic Education as Public Leadership Development."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6(4), 1993, pp.763~769.
- Dzur, Albert. "Professionalism, Democracy and Civic Education: A Conversation with Harry Boyte." *National Civic Review* 108(1), 2019, pp.32~39.
- Wolin, Sheldon S. *Politics and Vision: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Expanded e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P, 2004.

서사는 어떻게 회복탄력성을 높이는가?

조은상(건국대학교 문학예술심리치료학과 조교수)

1. 마음을 움직이는 서사

서사의 힘은 때로 정치권력과 경제력의 한계를 쉽게 뛰어넘는다. 세계는 힘없는 작은 나라의 불행한 역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불합리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민진의 <파친코>나 김은숙의 <미스터 션샤인>,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작은 나라 한국의 근현대사에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관심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것일 수 있지만 이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킨 것은 결국 소설과 드라마의 '서사'였다. 작은 나라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특수한 것을 보편에 엮어내는 능력 때문이었다. 누구나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익숙한 서사 구조에 낯설고 독특한 문화가 조화롭게 결합한 것이다.

서사의 힘, 스토리텔링의 힘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를 유혹해서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방법으로 서사가 선택된다. 사람들은 서사가 마음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회복탄력성은 어떠한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이 회복탄력성이라면 이러한 힘을 가진 마음으로서의 변화에 서사가 기여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2. 회복탄력성이란?

회복탄력성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 극복하는 힘으로, 건강하고 적응적 삶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심리기능이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발견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카우아이 연구’(Werner & Smith, 1982; 1992; 2001)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결핍된 양육 환경이 이후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다. 연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출생에서 중년에 이르기까지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출생하여 성장했고 출생 전후 합병증, 만성적인 가족 갈등, 이혼, 부모의 정신병리 문제를 경험했으며 낮은 학력의 어머니 아래서 성장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 가운데 네 가지 이상을 2세 이전에 경험한 참여자의 3분의 2는 10세 무렵 학습이나 행동 문제를 보이거나 18세 무렵 비행이나 정신과적 문제를 보였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은 이 연구에서 별다른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적응적인 삶을 영위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어떤 속성의 존재를 가정하게 했고 연구팀은 이를 ‘회복탄력성’으로 칭했다.

그리고 3분의 1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조부모, 형제, 친척, 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어른 등 ‘유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물과의 긴밀한 유대 경험’(Werner, 2005:12)이었다. 그동안 심리학에서 생애 초기에 안정된 대상과 긴밀한 유대를 경험하는 것은 자기와 세상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며 안전한 곳으로 경험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고 말해왔다. 생애 초기에 거부적이고 냉담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와 세상을 보는 틀이 되어 다른 상황,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싫어한다고 느끼고 세상을 위협적이고 거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뇌 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설명된다. 아기의 뇌는 가소성이 높아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경험, 학습을 통해 신경 모형을 구축하는데 일단 모형이 형성되고 나면 내부와 외부의 관계가 역전되어 내부구조에 맞춰 외부 세계를 인식하며 이미 형성된 구조에 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망각하거나 적극적으로 의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Storr, 2020:115-116).

카우아이 연구는 적응적 삶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험 중 유대 관계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양육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며 이후 관계 경험에 의해 변화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능하고 안정적인 대상과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심리구조는 적응적 삶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면서 초기 환경의 결핍을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의 핵심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난관을 극복하는 힘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안정되고 신뢰할 만한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심리구조를 전제로 가능한 심리기능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다.

누군가 생애 초기 안정적 대상과의 유대를 경험하기 힘든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자기와 세상을 보는 부정적 틀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가 좋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초기에 형성된 뇌의 신경 모형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복적 연습과 훈련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인지적인 알아차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다.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려면 뉴런의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를 이어주는 시냅스 부분에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 일정한 형태로 ‘자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이 효과를 보려면 보통 수 주에서 수개월 이상 반복해야 한다(김주환, 2019:84-87). ‘뇌를 재-회로화(rewiring)시키는 일이며 뇌의 반응 기제를 바꾸는 일’인 것이다.

심리상담에서, 특히 대상관계이론을 비롯한 정신역동상담에서는 생애 초기 관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안정적 대상과의 유대 관계를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을 치료 원리로 삼고 있다. 단순히 결핍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기 관계에서 비롯된, 습관화된 반응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간의 반복이 필수적이다. 뇌과학적으로 이 방식은 내담자에게 공감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상담자와의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여 뇌에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경험에서 비롯된 익숙한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자기심리학에서는 이를 ‘교정적 경험’이라고 부른다. 인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서와 지각을 포함한 반응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열악한 환경의 초기 경험 안에서 그가 불안을 낮추고 자기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습관화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음에도 뇌는 익숙한 형태로 인식하고 반응한다. 회복탄력성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습관화된 양식을 내려놓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그만큼 큰 저항과 불안이 뒤따르며 때로는 상담이 중단되기도 한다. 개인으로서 상담자가 이 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격적 성숙과 전문가로서의 숙련도가 요구된다. 장기간의 반복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내담자가 지불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상담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사후적 접근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회복탄력성이 적응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해야 하는 어떤 뇌의 신경망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삶을 영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지금 문제를 겪고 있지 않더라도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뇌의 신경망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을 언제든지 닦칠 수 있는 고난을 대비한 마음 근육의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방적 차원의 해법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개인과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적 해법이 요구된다는 점도 상담 외의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개인이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라는 점은 뇌 신경망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의 회복탄력성은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회복탄력성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공동체와 사회가 보여주는 회복력은 개인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경험되어 적응적 삶과 회복탄력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과 같은 개인적 접근 외에 사회와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방법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4. 서사는 이미 역할을 해왔다.

인류가 심리학을 발명하기 전부터 사용해 오던 뇌 훈련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술, 그중에서도 서사이다. 서사는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일지라도 말해지는 순간 재구성되므로 모두 허구, ‘픽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Boyd(2013)는 인류가 픽션이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와 타인의 의도와 계획, 행동을 추론하는 마음이론(mind theory)를 연습하게 하며 사실을 넘어서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나리오 행동, 대응을 시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왔다고 말한다. 특히 “픽션은 가능한 기회와 위협을 배우도록 해주며, 실제로 위협에 처하지 않고서도 피할 수 없는 좌절

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수단을 제공한다.”(Boyd, 2013:274)는 것이다.

서사는 단지 사고를 훈련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더 잘 기억되도록 한다. 감정적 경험과 함께 픽션은 위험과 좌절의 상황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거나, 손에 땀이 나는 등의 신체 반응도 함께 경험한다.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한 상상이 일어난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 우리는 세계, 신체, 정신과의 경험 중에 얻은 지각, 운동, 감정의 상태들을 재가동한다(Boyd, 2013:225). 뇌 신경망 연결회로는 생각, 느낌, 감각이 한 묶음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세 가지를 함께 제공하는 서사는 직접적 경험만큼이나 신경망 연결 회로를 만드는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문학텍스트의 서사에 몰입하게 될 때 독자가 현실 세계와 자기 자신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분리되어(Gottschall, 2023:52) 서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서사 이동(narrative transportation)’으로도 설명이 된다.¹⁾ 문학 작품을 읽는 동안 독자는 ‘나’라는 의식을 내려놓고 마치 작품 속 인물인 것처럼 인물의 의식을 경험한다. 실제로 이야기에 빠져든 순간에 뇌를 스캔하면 자아 감각과 연관된 영역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Storr, 2020:259). 버지니아 울프가 ‘자아의 완전한 소멸’이라고도 한 이 현상은 서사에 몰입한 독자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다르게 살아가도록 만든다. 이동의 순간에 우리의 신념과 태도와 의도가 이야기에 의해 달라지며 이 변형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뇌가 실제 경험과 상상 속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실제 경험과 상상 속 경험에 대해 반응한 뇌의 부위가 같았다는 연구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²⁾ 에모리 대학교의 그레고리 번스 연구진은 소설을 읽으면 휴식 상태의 뇌 연결성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Ouassil & Karig, 2023:114). 서사는 뇌를 새롭게 재조직화하는 것이다. 서사는 인간이 적응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역할을 연습하는 오래된 뇌 훈련법이었던 셈이다. 앞서 적응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뇌의 신경망을 형성하기 위해 안정적 초기 대상과의 경험을 비롯한 인간관계 경험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했는데 서사는 인간관계의 직접 경험을 대체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픽션은 현실과 달리 뚜렷한 구성과 인과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 것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보여줌으로써 뇌의 반응을 위한 시나리오, 모델을 제공한다.

1) ‘narrative transportation’은 서사 이동, 서사 도취, 서사 몰입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 글에서는 현실자아에서 벗어나 서사의 허구 세계로 이동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서사 이동’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2) Jonathan Gottschall은 “픽션이 허구임을 알더라도 정서적 뇌는 픽션을 현실처럼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영화 속 허구를 보면서 실제와 같이 반응하는 뇌의 fMRI 연구를 소개한다(Gottschall, 2014:88).

5. 회복탄력성의 서사란?

그렇다면 어떤 서사가 회복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가? 여기서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능력’이라는 회복탄력성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해볼 수 있다. ‘고난과 역경’은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통제 가능한 것으로, 또는 도전으로서 성장과 변화의 계기로서 본다는 것이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나’는 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믿음을 드러낸다. 또한 고난과 역경이 ‘나’에 의해 해결되는 낙관적 미래, 즉 ‘행복한 결말을 전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서사로 환원하면 어떻게 될까? 비범한 존재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지 못하다가 고난과 역경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진정한 자기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역경을 극복하며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는 서사, 즉 영웅 서사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영웅 서사는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신화는 한 인간이 태어나 통과의례를 거쳐 시련을 극복하면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이야기”(Campbell, 2007:238)이다. 영웅 서사의 인물은 시작은 미미하나 특별한 능력과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비범한 존재이다.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고 반드시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법은 없다. 그는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성장한다.

영웅 서사는 인간에게 가장 친숙하고 끊임없이 반복 재생하며 다양한 인물과 내용으로 변주되는 ‘서사 구조’를 의미한다. 남성적 영웅이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고대 영웅신화만이 아니라 돌봄과 회복을 이뤄내는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민담과 현대사회의 복잡한 갈등 속 인물을 그리는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서사 구조이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나 분석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세계 여러 문화에 동일한 구조의 서사가 존재함으로 발견하였고 인간의 보편심리에서 그 근원을 찾았다. 영웅 서사 역시 그러한 보편적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정신적 성숙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정신적 성숙 과정을 뇌에 각인시키고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정한 구조를 지니는 서사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영웅 서사 구조의 텍스트를 끊임없이 창작하고 즐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술창작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다. 우리는 영웅 서사 구조를 즐길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영웅 서사의 구조를 선호한다. 심리적

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며 이때 가지는 도덕적 우월성은 ‘유난히 강력하고 보편적인 긍정적 착각의 한 형태’로서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자아상을 보존하는 방식이다(Storr, 2020:127-128). 실수나 잘못에 대해 자책하고 우울해졌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하는 마음은 나에 대한 영웅 서사를 만드는 뇌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영웅 만들기 장치’에 가깝다고 말한다(Storr, 2020:125). 뇌는 잠재의식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웅 서사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결단력 있고 용감한 주인공으로 느끼도록 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믿게 만든다. 이번엔 못 해냈지만 다음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지금은 실수했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라 믿으며 좌절을 견디는 것은 자기 삶을 영웅 서사 구조로 스토리텔링하는 마음이 하는 일이다. 영웅의 여정은 너무 오래되어서 인간의 뇌에 깊이 박힌 첫 번째 문화유산이며 거의 모든 이야기가 이 형식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뇌가 이런 구조에 익숙하고 또 원하기 때문이다(Berns, 2024:153). 영웅 서사는 인간이 거대한 자연에 맞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견디며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인류가 고안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6. 영웅 서사 구조와 친해지기

영웅 서사 구조는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탄력성 형성을 위한 핵심 서사 모델이며 문학치료의 서사 전략이다. ‘위기-시련과 조력자의 등장-극복과 귀환’이라는 구조는 개인의 삶을 재해석하는 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독자나 참여자는 자신의 고통을 새로운 의미 체계 속에 위치시킬 수 있다. 문학은 단순한 서사의 전달을 넘어, 상처 입은 자아가 자신을 다시 서사화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치유적 장치로 기능한다. 위기는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로 재구성되며, 주인공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획득한다. 이러한 구조는 독자나 참여자가 자신의 고통을 ‘패배의 서사’가 아니라 ‘성장의 서사’로 전환하여 스토리텔링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회복탄력성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문학치료의 서사 전략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위기의 의미화 전략이다. 이는 고통을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성장의 통로로

재맥락화하도록 돕는다. 둘째, 동일시와 거리두기의 전략이다. 독자는 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감정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서사적 거리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다. 셋째, 재서사화 전략이다. 기존의 자기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부정적 정체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한다.

문학치료는 단순한 감정 해소를 넘어, 자기 이야기를 재편하는 인지적·정서적 통합 과정이다. 영웅 서사는 개인에게 “나는 실패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나는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게 한다. 이러한 서사적 전환은 자존감 회복과 미래 지향적 태도 형성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회복탄력성의 강화로 귀결된다.

문학치료는 상담자와의 사이에서 내담자가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문학텍스트를 통해 인류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해 온 서사의 구조, 보편문법에 익숙해지도록 함으로써 자기와 세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근원적인 성장을 조력한다. 내담자가 건강한 삶을 위한 적응적인 삶의 서사 구조로 자기 삶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서사가 펼쳐놓은 허구의 세계에서 상상의 경험을 통해 뇌 신경망의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방식은 상담 장면을 넘어서 예술과 교육, 서사를 즐기는 일상 어느 곳에서나 유효하다. 이로써 서사는 예방적 접근으로서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와 사회를 대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앞서 심리상담의 한계로 언급되었던 것들을 서사는 간단히 뛰어넘는다.

참고문헌

- 김주환, 『회복탄력성』, 위즈덤하우스, 2019.
- Berns, G., 『'나'라는 착각』, 홍우진 역, 흐름출판, 2024.
- Boyd, B., 『이야기의 기원』, 남경태 역, 휴머니스트, 2013.
- Gottschall, J., 『스토리텔링 애니멀』, 노승영 역, 민음사, 2014.
- Campbell, J.,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역, 민음사, 1999.
- Ouassil, S. E. & Karig, F.,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김현정 역, 원더박스, 2023.
- Storr, W., 『이야기의 탄생』, 문희경 역, 흐름출판, 2020.
- Werner, E. E., (2005). Resilience and recovery: Finding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in Children's Mental Health*, 19(1), pp. 11 ~14.
- Werner, E. E., & Smith, R.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 Hill.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Journeys from childhood to midlife: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기억하는 주체들을 통한 비금도 산명의 변경과 장소정체성 회복*:

그림산을 중심으로

박미선(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1. 머리말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비금도는 1996년 서남문대교의 완공으로 인근 도초도와 연결되었으나 여전히 육지와 직접적인 연륙교는 부재하여 선박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도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산의 해양 절경이 주목받으면서 수많은 산악인과 관광객이 비금도를 찾고 있다. 그러나 외부 방문객들에게 그림산이 매력적인 관광 지명으로 소비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비금도 주민 및 출향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지명의 역사적 연원과 정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고는 비금도 '그림산'에 대한 국가 주도의 기록, 과거 민간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현재 비금도 주체의 기억이라는 세 가지 층위를 중심으로 산명의 변천 과정을 검토하였다. 특히 국가의 기록이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때, 민간의 기록과 기억이 어떻게 장소정체성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기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행정 편의주의로 훼손된 섬의 장소정체성을 '지명 변경'으로 회복하려는 지역 주체들의 실천적 노력을 리질리언스(Resilience)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 본 글은 『도서문화』 66(「비금도 지명 변화와 장소정체성 회복 연구 - 그림산의 기록과 기억을 중심으로 -」, 2025.12.)에 수록된 논문 중 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2. 조선 시대~현대 비금도 그림산에 대한 기록과 기억

비금도의 산명은 조선 시대까지 지리지에 명시되지 않다가 1908년 『지도군읍지』에 이르러서야 ‘한산’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행정적 과정에서의 기록으로 주민들의 생활 속에 안착하지 못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지형도」에 기재된 마산, 성치산만이 지속되다가 2000년대 국가기본도에 ‘그림산’이라는 생경한 명칭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21세기 ‘지역’, ‘수요자’, ‘디지털화’, ‘관광’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투영된 결과였으나 지역민의 인식과 부합한 것은 아니었다.

2000년대 국가기본도에서 그림산으로 표기된 이 산을 지역 주민들은 다양하게 호명해 왔다. 다만 이와 관련한 공적 기록이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그 역사적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에 관한 단초는 지역 사회 내 여러 영역에서 파편적으로 확인되며, 광복 이후에는 주민들의 구전 기억을 수집한 자생적 기록물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선왕산(仙王山/仙旺山) 계열의 호명과 기록이 있다. 비금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지명은 선왕산 계열이다. 이는 표기 한자에 따라 선왕산(仙王山), 선왕산(仙旺山), 선황산(仙皇山), 서낭산 등으로 나타나며, 지형적으로는 선왕봉(仙王峰), 서낭봉 등의 명칭과 혼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명의 실체는 당제를 지내는 동자상 제단의 석문(石文) 기록, 학교 교가, 한글 지명 사전, 마을유래지, 구술 설화, 행정 공문 및 현지 이정표, 기념 문집 등 가장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록 중에서도 비금도 내 소재 학교 교가는 선왕산이라고 하는 산명의 체화와 전승을 보여주는 가장 유의미한 기록이다. 지명의 체화는 매일 교정에서 산을 바라보는 실존적 경험을 통해 공고해지며, 전승은 그 지명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이 조망되는 학교들의 입지 조건과 교가 제작 및 확산의 기점을 이해하는 것은 산명이 비금도 주체들의 삶에 뿌리내린 과정과 맞닿아 있다.

지명의 체화 측면에서 볼 때 비금초(신원리), 비금서초(죽림리), 비금중(덕산리)은 모두 선왕산과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다.¹⁾ 학생들은 교가를 부르는 행위를 통해 산의 명칭을 내면화하는 동시에 산의 실체를 확인하는 경험적 학습을 병행했다. 이처럼 시각, 청각, 그리고 장소의 물리적 환경이 결합된 교육적 경험은 선왕산이라는 산명이 비금도 주민들의 기억 속에 가장 강력하게

1) 비금도는 동부·중부·서부로 구분되며, 동부에는 비금동초등학교, 중부에는 중앙초등학교(대광분교)[현재 폐교], 비금초등학교, 서부에는 비금서초등학교[현재 폐교]가 있었다.

뿌리내리게 한 핵심적 기제로 작동하였다. 또 초등학교 교가의 전승의 시점은 적어도 광복 전후 시기로 추정되어 이때부터 선왕봉이 학교 교육과 공동체의 기억을 연결하는 산명으로 안착하기 시작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965년 개교한 비금중학교의 교가는 신원리, 내월리, 죽림리 등 인근 마을 단위에 분산되어 있던 산명 인식을 비금도 전역의 공통된 기억으로 결속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당시 비금중학교는 학구 편제상 중·서부 지역 뿐만 아니라 산에서 떨어진 동부 지역의 졸업생까지 모두 수렴하는 상급 교육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미 유년기에 선왕산의 정기를 체화한 중·서부 학생들과 새롭게 교가 지명을 접하게 된 동부 학생들이 선왕산이라는 명칭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명을 공유하며 기억의 동질화가 확산되는 시점을 1960년대 중반으로 비정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도서 지역의 특성상 초등학교 졸업 후 목포 등 육지의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섬 밖 유학’ 주체들의 존재이다. 이들은 비금중학교에 진학한 동년배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었지만 유년시절 비금초·비금서초 교가를 통해 각인된 선왕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섬을 떠났다. 선왕봉·선왕산은 단순한 산의 명칭을 넘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정서적 기반이자 출향인들 사이의 장소적 유대를 확인하는 매개로 작용했다.

다음으로 ‘기린산(麒麟山)’, ‘기림산’, ‘그림산’ 등의 호명이 파악된다. 이 중 가장 앞선 사료적 근거는 평강채씨 족보에서 발견된다. 이 가승보는 채수길의 부친이 제작한 것으로 「평강채씨가승보서」에 의하면 기해년 즉 1959년에 만들어졌다. 이로 볼 때 망동에서 태어나 대대로 거주하며 이곳을 가문의 터전으로 삼은 평강채씨 가문에서는 이 산을 기린산으로 호명하며 가문의 장소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여러 구술 증언을 통해서도 기린산의 풍수적 위상이 확인된다. 이로 볼 때, 산의 형상을 기린이라고 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보고, 이 지역을 명당으로 여겼던 전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림산’은 죽림리 죽치마을의 위치를 설명하는 『마을유래지』, 『신안군지』 등에서 파악된다. 이러한 기림산에서 기림의 유래에 대해서는 ‘그림’의 방언이라는 이해와 ‘민둥산을 뜻한다’는 두 가지 이해 방식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기림산이라는 말이 그림의 남도 방언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1971년 구술 조사에서는 ‘기림’을 ‘그림’의 의미로만 정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림산’이라는 호명은 문헌 기록이나 마을별 호명법을 종합적이고 계보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기림산’의 ‘기림’이 ‘그림’의 방언이므로 ‘그림산’으로

호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산명에 대한 역사적·종합적 접근 없이 특정 방언을 표준어로 바꾸는 언어학적 접근만 있었고 이를 그냥 수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3. 비금도 그림산을 기억하는 주체들의 증언

이처럼 국가 기록상[국가기본도]의 ‘그림산’은 지역의 민간 기록과 기억을 종합하여 접근하지 못하였고 그 서사적 진정성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금도의 지명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호명해 온 주체들의 증언을 통해 기록에서 누락된 장소의 의미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비금도 주민들이 공유하는 지명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파편이 아니라 그들이 해당 장소에 대해 느끼는 실존적 내부성과 정서적 유대를 보여주는 역사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비금도 주민 대표 그룹, 비금면 행정 관리자 그룹, 비금초등학교 총동문회 그룹, 기타 그룹 등 4그룹으로 구분한 9인의 기억 주체들을 구술자로 선정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 대표 그룹은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 비금도강강술래보존회 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평생 비금도에서 거주하거나 장년기에 귀향하여 장기 거주 중인 실존적 내부자들이다. 행정 관리자 그룹은 지명 변경의 행정적 절차를 담당하는 전·현직 면장을 섭외하였다. 전·현직 면장은 지명변경이 본격적으로 발의되기 시작한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비금면장들로 관련 업무 추진 경과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²⁾ 총동문회 그룹은 초등학교 시절을 비금도에서 보냈고 그 이후에도 방학이나 군 입대 전에 비금도에 간헐적으로 거주하여, 비금도에서의 기억을 간직한 채 섬 밖에서 고향의 상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성찰적 주체들이다. 기타 그룹은 비금도에서 태어나 1970년대 교육 현장에서 공식 지명과 지역 서사를 동시에 다루었던 전직 교사를 포함하여 기억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비금초등학교 100주년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의 <업무추진 경과 내용>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표> 인터뷰 그룹 분류 및 특성

구분	응답자	연령	비금도 거주기간	현 거주지	산명 기억
주민 대표 그룹	전 자치위원회위원장 농촌지도자 회장	70대	70년	신원리 신촌	선왕산
	이장협의회 총무 이장	60대	45년 귀향	구림리 구기	그림산 선왕산
	강강술래보존회 감사 현 자치위원회부위원장	70대	75년	죽림리 상암 →덕산리 읍동	기림산 기린산 선왕산
	강강술래보존회 부회장	60대	69년	내월리 외촌 →죽림리 상암 →덕산리 읍동	기림산 그림산 선왕산
행정 관리자 그룹	전 비금면장	50대	35년 간헐적 거주	구림리→목포	기린산 선왕산
	현 비금면장	50대	10개월	덕산리 읍동	*
비금초 총동문회 그룹	비금초 총동문회 회장	80대 이상	12년, 간헐적 거주	신원리 원평 →서울	기린산
	비금초 100주년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70대	9년, 간헐적 거주	죽림리 상암 →서울	기린산 기림산
기타 그룹	전 비금초 선생님	70대	50년 귀향	구림리 수림	기린산 선왕산

주민 대표 그룹은 생활권의 경계인 죽치를 기준으로 ‘선왕산’과 ‘기린산’ 양측을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선왕산에 대해서는 그룹 내에서 혼선 없는 일관된 기억이 공유되고 있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가 등 유년기부터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체화된 문화적 장치가 장소 정체성을 공고히 다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현재 ‘그림산’으로 공표된 지점에 대해서는 기린산, 그림산, 기림산 등 다양한 호칭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들은 “그림산이 발음하기 편해 고착된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림산이라는 명칭 자체에 담긴 특별한 전설이나 역사적 내력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기림산’은 그림의 방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행정 관리자 그룹의 증언에서 거주 기간이 짧은 현직 면장의 경우, 개인적 노스텔지어보다는 주민 여론과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중립적 위치를 견지하였다. 한편 35년간 비금에 적을 두었던 전직 명장은 행정적 시각

과 내부자의 기억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기린산’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독수리가 날아가는 형상이고 육지에서 바라보면 발 달린 동물이 서 있는 형상으로 전설 속 동물이 살고 있다는 구설이 전해온다.”라며 지형적 서사가 가미된 증언을 내놓았다. 이는 지명이 지형의 물리적 실체와 공동체의 상상력이 결합된 산물임을 잘 보여준다.

비금초등학교 총동문회 그룹은 기린산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들은 기린산이라는 단일 명칭을 유년기의 문화적 원형으로 간직하며 고향의 상징적 정체성을 복원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일부 죽치 쪽에서 민둥머리 기에 수풀 림을 써서 민둥산이라는 의미의 기림산이라고 하였음을 들었지만 이는 오류이고, 기린산이 타당하다는 구설이 있었다. 단군을 서낭으로 보고, 단군이 기린을 타고 다녔다는 전설을 기린산과 연관시켰지만,³⁾ 이는 비금도 내에서 주민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전승되는 전설은 아니었다. 또 조부 및 부에게서 “상서로운 기린산의 정기를 받아 국가의 중추적 인물이 출생할 것”이라는 윗세대의 예언적 구설도 강조하였다. 비록 이러한 전설이 비금도 전체에서 일반화된 것은 아닐지라도, 출향민들에게 기린산은 고향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정신적 지주로 작동하고 있었다.

교육자 출신의 기타 그룹 구술자는 비금초등학교에서의 교육 경험과 교육 자료를 근거로 선왕산과 기린산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구전뿐만 아니라 공적 교육 과정을 통해 공식화된 산명에 대한 기억을 보유하고 있어 기억의 사료적 가치를 높여준다.

이러한 주체들의 기억을 종합해볼 때, 선왕산 명칭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림산에 대해서는 지명의 역사성과 정체성 반영 정도가 매우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조사 결과, 그림산이라는 지명이 비금도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명이었으며,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8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구술자들은 그림산이 공식 지도에 표기된 배경으로 ‘행정적 편의’와 ‘관광 홍보’를 지목하였다. 총동창회 그룹은 “한두 명의 증언에 의존한 행정 착오”로 인식하며, 지역의 진정한 장소성이 훼손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생업에 분주한 비금도 내의 주민은 산명 변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구술자는 “그림산 이름은 왜 바꾸려고 한데?”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섬 주민들 가운데에서는 생업과 연결되지 않는 산명에 대해서 그 관심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소에 너무나 깊이 동화

3) 김광영, 『비금도 표지석 건립』, 표지석 건립 추진위원회, 69~73면.

되어 지명을 당연시하는 내부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현재 지명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주민 대표들은 이러한 일상적 침묵을 깨고 출향인들과 연대하여 2025년 비금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점으로 산명을 복원하려는 실천적 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⁴⁾ 이는 훼손된 상징 자원을 바로잡으려는 공동체의 능동적인 리질리언스 과정이자, 다음 장에서 살펴볼 지명 복원의 구체적 방향을 추진해 가는 동력이 된다.

4. 지명 변경과 장소정체성 회복

‘그림산’은 고시 지명이 아닌 미고시 지명이므로 변경이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역사학적 관점에서 지명은 특정 시기 국가의 국토 관리 정책과 지역 공동체의 기억이 충돌하고 타협하며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다. 이-푸 투안은 지명이 추상적인 공간에 사회적 질서와 가치를 부여하는 명명의 권력성을 지닌다고 보았다.⁵⁾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양한 법·행정규칙·지명 표준화 편람 등의 원칙을 검토하는 것은 국가의 명명 체계 안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지명 주권을 회복하고 ‘장소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다.

그 중 지명 변경 실제 매뉴얼인 「지명 표준화 편람」에 따르면 지명 제정은 1궤체 1지명, 변경의 신중성, 주민 참여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현 지명은 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는데, 만약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한다면 지명 제정의 세부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⁶⁾ 현지에서 현재 불리고 있는 지명, 지역의 정체성·역사성·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에드워드 렐프가 강조한 ‘장소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⁷⁾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의 참여’라는 기본 원칙과 ‘지역 정체성’이라는 세부 원칙이 지명 변경의 주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비금도 주민들이 그림산 지명 변경의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변경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구술자들은 지명 변경시 고려해야 할 최우선 사항으로 ‘지역인의 구술 서사성이 풍부한 명칭(6명)’을 꼽았다. 구술자들은 조상으로부터 전승된 정통성을 계승하여 선조들의 얼과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지명의 본질이라고 보

4) 비금초등학교총동문회, 「비금도 산 이름(지명) 복원 청원서」, 『비금초등학교 개교100주년 기념식 및 행사 자료집』, 32~33면.

5) 이-푸 투안 지음, 윤영호·김미선 옮김,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6)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표준화 편람』 제3판, 2018, 26면.

7) 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았다. 이는 렐프가 말한 ‘실존적 내부성’의 발현으로 주민들에게 외부 행정이 부여한 ‘그림산’이 아니라 삶과 전설이 깃든 산명을 복원할 때 비로소 자신들과 일치화된 진정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외에 ‘문헌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명칭(3명)’과 ‘지역 발전에 유리한 관광 마케팅 명칭(3명)’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는데, 이는 역사적 근거 확보와 미래 발전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공동체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특히 교가나 강강술래의 노래말 등 70여 년 이상 축적된 기록은 주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정체성의 준거가 되고 있었다.

각 그룹의 산명 변경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1명을 제외하면 7명이 적극적 참여를 선택할 만큼 매우 높았다. 또한 지명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장소 정체성(자부심, 애향심 등)과 지역 발전 가능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7명이 답변하여 동일하게 높았다. 주목할 점은 그룹별 인식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섬 밖에 거주하는 비금초 총동문회 그룹은 가장 강력한 참여 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물리적 거리가 오히려 고향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장소감’을 선명하게 하고, 지명 왜곡을 자신의 정체성 훼손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장소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섬 내부의 행정 관리자 그룹은 중립적 위치를 견지하면서도 지역 리질리언스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명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민 대표 그룹은 생업의 현장을 우선시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지명 복원이 공동체의 상징적 자원을 회복하는 핵심 과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기타 그룹에서는 지명 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섬 내부에 거주하면서 섬 실정을 몸소 체험하는 입장에서 무관심하지도 지나친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림산’이라는 산명의 대체 명칭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1명)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린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명으로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다만 그림산을 기린산으로 변경하는 것일 뿐 선왕산 산명을 폐기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아울러 좀 더 적극적으로 선왕산·선왕봉, 기린산과 같이 두 개의 산과 봉우리로 구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구술자들은 그림산이 기린산의 발음 변형이며, 지형적 서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렐프의 관점에서 현재의 그림산은 지역의 맥락과 부관 무관하게 행정 편의에 의한 ‘비진정성’의 산물이며, 장소 고유의 서사를 지워버린 ‘장소상실’의 결과인 것이다. 주민들이 기린산을 선택한 이유는 산의 물리적 실체와 서사를 일치시켜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잡으려는 주체적인 실천이다. 이는 “경

치가 좋아 그림 같다 하여 그림산이라 부르는 산은 유래를 찾기 어렵다”는 구술에서 보듯, 실존적 진실을 찾으려는 구술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지명 변경이 비금도 공동체에 미칠 미래 지향적 가치로 가장 고르게 선택한 것은 ‘공동체 결속력 및 일체감 회복’이었다. 지명 변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흩어진 비금도 주체들을 ‘고향’이라는 정신적 구심점으로 재결합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일원화된 지명과 유래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주체들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 총동창회 그룹 등이 강조한 ‘문화적 자존감 회복’은 장소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자아 정체성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기제를 반영한다.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과 예술섬 프로젝트 등의 시행으로 비금도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는 만큼 산명의 변경을 통해 국제적 길지로 의미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훼손된 상징 자본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잡는 행위는 개인의 욕구를 넘어 공동체의 성찰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고차원적 회복의 과정이다. 비금도 산명의 재구성은 국가 권력에 의해 소외되었던 지역의 구술 서사를 공식 기록의 영역으로 복원함으로써 ‘장소의 상실’을 극복하려는 능동적인 리질리언스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행정 편의주의로 명명된 그림산이 지역 주체의 기억 및 기록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피고, 지명 변경을 통해 장소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비금도민들의 실천적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문헌과 구술을 검토한 결과, 그림산은 주민들의 실존적 경험이나 지형적 서사를 반영하지 못한 비진정성의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비금도 주체들은 교가와 가승보, 설화 등을 통해 선왕산과 기린산이라는 명칭을 공동체의 핵심적인 상징 자본으로 전승해 왔다. 특히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지명 복원 의지는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행위를 넘어 훼손된 장소의 진정성을 되찾으려는 능동적인 리질리언스의 발현이었다. 비금초 개교 100주년을 기점으로 전개되는 지명 변경 청원 운동은 소외되었던 지역의 구술 서사를 공식 기록으로 복원하는 지명 주권 회복의 과정이다. 이러한 주체적인 노력은 물리적으로 흩어진 공동체를 ‘고향’이라는 정신적 구심점으로 재결합시켜 공동체의 결

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산명의 재 구성은 비금도의 장소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미래 지향적 실천이다.

결과적으로 지명 변경은 행정 권력에 의해 지워진 비금도민들의 ‘장소 만들기’ 권리를 회복하고, 장소상실의 위기를 극복하는 성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자생적 기억이 국가 공식 기록의 오류를 교정하는 강력한 기제가 됨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지명 정책은 지역 주체의 실존적 내부성과 장소 고유의 서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영, 『비금도 표지석 건립』, 표지석 건립 추진위원회.
- 비금초등학교총동문회, 『비금도 산 이름(지명) 복원 청원서』, 『비금초등학교 개교100주년 기념식 및 행사 자료집』
- 이-푸 투안 지음, 윤영호·김미선 옮김,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표준화 편람』 제3판, 2018.
- 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정책 동향 및 제언

박주희_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청년소멸보고서』와 함께(서로) 돌봄

연대와 회복을 위한 사회적 돌봄 재구성 정책 제언

* '정책 동향 및 제언'은 '리질리언스'와 관련한 국내·외의 각종 정책을 발굴·소개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청년소멸보고서』와 함께(서로) 돌봄*:

연대와 회복을 위한
사회적 돌봄 재구성 정책 제언

박주희(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배경

광주·전남 지역은 본격적인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더해 청년층의 대규모 순유출이 겹치면서 지역 소멸 위험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2년 광주·전남 인구는 267만 명으로 전망된다. 2024년 322만 명보다 55만 명 줄어드는 규모다. 광주는 146만명에서 118만 명으로, 전남은 176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핵심 원인은 낮은 출산율과 청년층 이탈이다. 지난해 광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을 밑돌며 서울·부산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 순유출 인구(7962명) 가운데 청년층(20~39세) 비중은 73.6%에 달했고, 이는 2020년 대비 87%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청년층의 이탈과 지역의 정주인원의 감소로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지역민의 돌봄 영역 역시 침체되고 있다.

2. 주요내용

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생활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문화와 삶의 패턴, 여가에 걸맞은 생활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청년들

* 이 글은 2005년 11월 27일(목)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주최한 '고향 평균연령 낮추기 비전포럼'에서 발표한 토론문의 일부입니다.

이 좋아하는 온-오프라인 활동 관련 지원이 요구된다. 러닝크루와 같은 활동을 지원한다던지,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공공시설, 안전한 도시구조의 마을, 지역 내 주민들 간에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의 구심적 정체성,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청년들의 계속 거주 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② 지역유형별에 차이가 존재한다.

- 비도시지역: 생활 인프라(운동, 장보기, 공공시설 등)는 부족하지만, 사회적 자본(이웃 관심·도움)은 도시보다 우수하다.
- 중소도시: 동네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생활 만족도와 기회 제공 수준이 낮아 개선 필요하다.
- 대도시: 생활 인프라는 우수하나 사회적 관계·네트워크가 취약해 청년들의 외로움·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지원책 필요하다.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문화적 변화를 노린다.

- 25~29세 청년은 안정된 일자리(상용직 여부)가 지역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사실 일자리와 취업여부가 지역 정주에 가장 결정적이다. 그 어떤 대책이 필요 없을 만큼 일자리 창출이 대안에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청년에게 가능하며, 의미 있는 일자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 청년 시절에 살았던 곳에 대한 거주 의지가 높을 수 있다. 특히 청년 시기에 친구와 동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포기하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청년 본인의 삶에서 중대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돌봄과 같은 인간적 경험이 뒤따른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비도시·중소도시의 생활 만족도 제고, 생활 인프라 개선, 다양한 기회 제공이 청년 유입·정착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3. 정책제언

① 생활여건 개선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

-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조깅, 산책 등 일상적 운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

- 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청년 친화적 시설 확대.
-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범죄 예방, CCTV·가로등 설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② 지역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 비도시지역: 생활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교통·편의시설 확충, 청년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한다.
- 중소도시: 안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치안 강화,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 대도시: 사회적 관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마련한다.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상용직 확대, 지역 기업 취업 지원 등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다양한 가족 구성 모형 및 단계에 맞춘 주거 안정·지역 안전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 생활 만족도 제고, 다양한 기회 제공, 청년 맞춤형 정주지원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 마련한다.
- 문화적, 심리적 맞춤형 프로그램(서로 돌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위한 패키지를 마련한다.

4. 시사점

세상은 느리게 변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십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인간의 삶 역시 결코 빠르지 않다. 지역의 인구들이 느리게, 천천히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처럼, 이제 반대로 다시 지역으로의 느린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너무 급한 정책들로 땀방식, 일회적인,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느린 정책으로 이 문제를 타계하는 것이 어떨까. 인간은 누구나 나를 돌보고 타인을 돌본다. 지금의 청년들은 프라이어비시, 개인의 삶, 온라인에서의 자신을 투영 등 삶의 전반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맞춰 지역에서의 문화적 변화를 위한, 인식 변화 운동, 캠페인 등 경제적, 물리

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Pluresilience FOCUS

2026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3.0 플루리질리언스 사업단
HK3.0 Pluresilience Research Unit, CNU